

■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상반기) 지원심의 총평

- 심의회의 명 :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상반기) 입주작가 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3시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명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서울프린스호텔이 후원하는 '소설가의 방'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간 이 자리를 거쳐간 신진 작가들이 이제는 한국문학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예술현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4명(작년 기준)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신진 작가들의 새로운 이야기로 구축될 한국문학의 공간도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상반기 입주를 희망하는 25명의 신청자가 보내준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 편의 우수한 창작물을 위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창작 이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제공되는 집필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가산하여 우대하였다. 그 결과 3인의 위원들이 개별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토론 후 최종 6명을 선정하였다.

소설을 쓰는 일은 사실, 소설과는 무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가능할 때가 많다. 그것이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나 사회적인 문제일 때도 있다. 아마 집필공간의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당장의 문장을 완성하는 데에는 너무 먼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의 문장을 쓰는 일의 전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멋진 공간을 제공해준 호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 일동